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기불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이현주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백신에게 듣는다<스물여덟번째>

설산 큰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왕생극락과 생활불교
- 일시 : 불기2549(2005)년 7월 16일(토) 15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설산큰스님 약력

- ▶ 1919년 경북문경 유곡리에서 태어남
- ▶ 1933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스님을 은사로 계허스님을 계사로 득도
- ▶ 1943년 해화전문학교(동국대학교전신) 불교학과 졸업
- ▶ 1972년 도선사 실달승가학원 원장 및 강사
- ▶ 1974년 삼각산 정토사에서 염불만일회 설립
- ▶ 2001년 염불만일회 회향
- ▶ 2005년 현재 삼각산 정토사회주



7월 사찰환경 답사

〈통영 연화도(연화사,보덕암),남해 보리암〉



- 일 시 : 2005년 7월 23~24일(1박2일)
- 출발지 : 오전7시30분-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7만원
(숙식비/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7월호

불기2549(서기2005년) 7월 (통권 제22호) / 매월 1일 발행(월보)



권두언

자기를 비워가는 수행방법...

금당 진철희/경기불교문화원장



- 신들이 사는 물의 도시(앙코르왓트 1)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가끔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절실히 필요할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수행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참선, 위빠사나 염불, 봉사, 독경등 다양한 수행 방법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택하여 꾸준히 하다보면 건성은 못할지라도 중간 건성(?)의 과정을 거치게되면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하고 자유로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다가도 중간 시험이 끝나갈 무렵이면 책상에 꽂혀 있는 불교유적지 자료를 보면서 나를 찾아 떠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상화 된 듯 합니다.

미지의 만남은 항상 내안에 새로운 생기를 채우기 위해 기존의 낡은 것들을 털어내는 일과도 같습니다. 새로운것들을 굴곡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불편함이나 편리함의 개념도 지워버리고 오직 "나"라는 생각을 비우는 일정으로 맞추면 항상 즐겁고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자 이제 필자와 함께 신들이 사는 앙코르 유적지로 떠나 봅시다!

붉은빛 진흙 땅위에 회색빛 도시가 우뚝서 있으며 간간이 눈에 띄는 진 초록 수풀들 사이에 진회색빛의 뾰족한 탑들이 불쑥 불쑥 튀어나와 있는 이국적 모습을 보면서 씨엠티(Siem Reap) 공항에 내릴때는 한 여름의 더위를 식히는 스콜이 한 바탕 뿌리고 아쉬움이 남아 이슬비로 뒤통수를 적셔주고 있는 오후 5시경이었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비자비 문제도 실랑이를 벌이다. 우리측의 양보로 수속을 빨리 끝내고 밖으로 나오니 진녹색 밀밭 가운데에 2차선의 아스팔트 도로 옆으로 낮고막한 고층 건물들이 열병식을 하듯 반듯하게 서 있었다.

앙코르(Angkor)라는 단어는 왕성함을 의미하며 와트(wat)는 사원 자체를 뜻하는 말이다. 한 때 차이나반도를 지배했던 크메르제국의 앙코르왕조가 12세기초에 건립한 사원이다. 당시 크메르족은 왕이나 왕족이 죽으면 그들의 신과 같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왕들은 신의 사원을 건립하는 풍습이 있었다한다. 앙코르왓트도 앙코르 왕조의 전성기를 이룩한 수리아 바트만 2세가 브라만교 중심의 하나인 비슈누와 합일하기 위해 건립한 거대한 힌두교 사원이다. 세계의 중심으로 신들의 자리를 뜻하는 수미산을 돌로 정확하게 쌓아 놓았으며 중앙탑의 높이가 67cm로 탑의 모양은 연꽃 모양으로 되어 있다. 중앙사원탑의 끝에서 삼층으로 둘러싼 사각탑 끝을 선으로 연결해보면 사각뿔의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고 있다. 3만여명의 숙련된 장인들이 30년 걸쳐 완성했다는 이사원을 보면서 현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1. 이집트 쿠푸왕의 피라미드 2. 로마 원형 극장 3. 영국의 거석 기념물 4.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5. 중국의 만리장성 6. 터키 소피아 성당 7. 알렉산드리아 파로스 등대)의 모습들이 잠시 뇌리속에서 지나간다.

앙코르유적으로는 드물게 서쪽면이 정면으로 잡고 있는데 그 이유중 하나는 크메르인의 풍습으로 죽은자는 반드시 서쪽에 둔다는 점과 2세왕(수리아바르만2세)의 묘로 지어졌기 때문에 서쪽에 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유력해지지만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아마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정토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서쪽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론해본다.

앙코르왓트는 앙코르 유적 가운데 가장 큰 사원인 동시에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다. 멀리서 이 사원을 보면 우선 그 크기에 놀라지만 가까이에 다가가면 기둥과 벽면마다 새겨진 정교한 부조에 단 한번 놀라게 된다. 과연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다. 중앙의 신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3층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 계단의 폭이 발을 바로 놓을수 없을 정도로 좁고 경사도는 80도 정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계단이 12개나 있는데 원래 이 계단은 인간을 위해 만든 계단이 아니라 신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란단다. 우리 답사반 25명 일행이 이 가파른 계단을 지나 신의 세계인 중앙탑 서쪽에 모셔진 부처님 앞에서 준비해간 공양물을 드리고 예쁜 한복으로 갈아 입은 선녀님들과 함께 예불과 찬불가로 음성 공양하니 주위에 있던 관광객은 물론 경찰관들이 모여들어 한동안 설명 하느냐 시간이 걸렸다.

경기 불교



부처님 말씀(1)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Mind precedes all mental states. Mind is their chief: they are all mind-wrought. If with an impure mind a person speaks or acts, Suffering follows him like the wheel that follows the foot of the ox. -DHAMMAPADA 1-

한방각비 전문점 고향숯불각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 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III

虎岩 迦葉스님



◆ 유마라는 사람

『유마경』이 비사리라는 도시의 역사적·지리적인 조건 밑에서 씌어졌다고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 두고 싶은 것은 재가 신자인 유마라고 하는 이 경의 주인공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유마는 비사리에서 세속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불교에 귀의한 이른바 거사(居士)이다. 따라서 처자도 있고 장사도 하고 좋지 않은 장소에 출입하든지 하는 점은 일반 서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다만 예사 사람과 다른 점은 어떤 경계에 있을 때라도 그것에 얽매임이 없이 잘 처신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행동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이상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투전판에서 놀고 있을 때나, 화류계에서 창녀와 접하고 있을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욕망이나 번뇌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도(道)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부터 구해 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 자신 욕망이나 번뇌에 잠겨 있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도 그것에 물들지 않았다. 하기는 유마라고 불린 것도 이렇게 더러움에 젖지 않은 생활이 소문났기 때문인 듯하다. 유마는 더 자세히 유마힐(維摩詰)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으나, 원어인 산스크리트에서는 비마라킬티(Vimalakirti)라 한다. 비마라는 '더러움에 없다'는 뜻이며 킬티는 '소문'이나 '명성'의 뜻이기에, 중국에서는 '무구칭(無垢稱)'·'정명(淨名)'이라 번역된 일도 있었다. 다만 중국어로 번역된 이름 중에서는 중국의 유명한 번역가인 구마라습이 음역한 유마힐 또는 유마라는 호칭이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어쨌든 그는 하는 일 모두가 번뇌의 더러움에서 해방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경에서는 그를 칭찬하여, 능히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얻어서 어떠한 방편도 뜻대로 쓸 수 있으며, 이미 일으킨 서원을 완성한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며, 또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비사리에 살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은 과거 무수히 생사를 되풀이하던 긴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처를 공양하여 공덕의 씨를 심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유마라는 사람은 반야의 공(空)의 정신을 체득하여 이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거니와, 그것이 오랜 과거에 걸친 여러 부처에 대한 공양에 의해 얻어진 것임을 믿고 이를 따르는 재가 신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공양이 음식이나 의복을 회사하는 행동을 뜻하는 한, 그것은 생산에 종사하여 재물의 축적이 가능한 재가 신자가 아니라는 이룰 수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승 불교의 한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이 종교운동은 전통적인 권위주위에 서서 빈잡한 생활 규율이나 수행 방법을 묵수한 출가 교단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라난 것으로, 재가 신자로서 가능한 부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라든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공양이라든지 하는 것을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재물의 축적은 다만 자기 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추구된 것이 아니라, 부처에 대한 깨끗한 신앙을 뒷받침으로 해서 남에게 공양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회사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에 의해 비로소 정당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마가 백만 장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 회사가 더욱 완전하게 실천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재물이 풍족한 그런 상황이야말로 재가 신자에게는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생각된 까닭이다. 여섯 바라밀의 처음에 보시바라밀을 내세운 『반야경』의 정신은 여기에서 충분히 그 의의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재물 축적의 윤리임에 틀림없다.



◆ 유마경의 구성

『유마경』은 이러한 재가 신자인 유마를 주인공으로 하여 씌어졌다. 석가도 등장하기는 하나 처음과 끝에 나타날 뿐이어서 경전의 중심 부분은 유마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말하자면 이 경전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유마이며, 석가의 제자들도 여기서는 단역(端役)을 맡고 있을 뿐이다. 『지혜 제일』이라는 말을 듣고 석가의 제자 중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사리불(Sariputra)같은 이는 약간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 꼼짝도 못하는 궁지에 몰려 생각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목을 움츠리는 피에로적인 존재가 되고 말아, 여기에서도 재가 신자를 중심으로 한 대승 불교의 성격이 유감 없이 발휘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기 배우라든지 피에로 같은 이를 등장시킨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이 경은 대승 경전 중에서도 드물게 보는 희극적 구성을 지닌 경전이기 때문이다. 경기 불교

가마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 297-2000 / 011-733-1985

검로보석

대표 : 이재익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4-1(선일프라자 107호)

TEL : 031) 255-9484 H.P : 017-312-9484



법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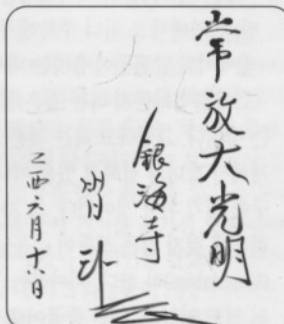
통일을 위한 밑거름은 보시의 마음으로부터 시작 된다

법타스님/은혜사주지
조국평화통일협회장



오늘 더운 날 초여름의 길목에서 이 좋은 도량에서 경기불교문화원 불자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러나 이 좋은 법당이 있어도 불자들의 고정관념에 의하여 재가자가 운영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좋아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재가자가 목탁을 치고 불공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여도 스님이 천수경을 독경을 하고 불공을 드려야지 하는 불자들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생제도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승속을 떠나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곳 경기불교문화원은 재가불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으로 운영하는 좋은 도량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좋은 내용의 글이 있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오늘 내가 빈천하거든 배풀지 않았음을 알며 남의 고통을 외면하고 악착스레 재물을 모아 자식주려 하였거든 일시에 재가 되어 허망하게 될 것을 각오하라. 상대는 나이거늘 그를 통해 나를 보라. 빈천 자가 보이거든 나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고 보시하고 적선하며, 부자를 만나거든 배풀어야 그와 같이 될 것을 알아라. 가진 자 보고 질투하지 말라 배풀어서 그러하고 없는 자 보고 비웃지 말라 배풀지 않으면 너 또한 그러하리라.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거든 내 부모를 내가 편히 모시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음을 반성하고 오손도손 우애하고 화목한집 부러운가? 과거 생 서로도와 만난결실이니라. 병고로 연명하고 단명한 자 있거든 방생하라 다른 생명 빼앗은 살생이 원인이고, 불구자식 안았거든 부모불효 과보로다. 뿌리는 부모, 줄기는 남편 아내, 열매는 자식이니 부모에 거름하면 남편 자식 절로 되고 뿌리가 썩어지면 남편자식 함께 없다. 지은자도 너였고 받는 자도 너이니라. 오는 고통 달게 받고 좋은 종자다 시심어 이 몸 받았을 때 즐겁게 가꾸어서 만물은 마음이 창조하니 무종교인도 선행을 하면 기쁨의 열매를 얻으며 종교인도 악행을 하면 더 큰 과보 피할 수 없네 이것이 고준한 마음의 법으로 불변의 진리라네 짜증내고 원망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감사하게 받아내면 서방정토 예요니 내마음속 법을 두고 어느 곳 찾아 해매는가? 일체가 유심조(一切唯心造)라 이제라도 나를 찾아 참선 수행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세 그때는 처처가 안락국(處處安樂國)이요 흥타령뿐이라네」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오늘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법문입니다. 이 이상 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너라는 제2 대상자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이야기 하면 좋은 인연을 지어야 결국 행복해 지고 보람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효성, 형제 자식에 대한 우애, 나라에 대한 충성, 친구에 대한 신의 등 가까운 인연일수록 좋은 업을 쌓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시는 것과 똑같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고통은 분단에 있으며 이런 이유로 우리의 소원은 민족통일에 있습니다. 우리사회 혼란의 원인은 민족분단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극과 극의 치단은 대립, 갈등투쟁을 순화시키는 것이 종교입니다. 상대와 함께 존재하기 위하여 상생을 위하여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둘 다 죽이거나 어느 하나가 망하고 어느 하나가 잘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민족의 일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저는 북한을 40여 차례 방문하여 무엇을 도와주어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고민하여 북한 사리원에 국수 공장도 만들었고 북한에 사찰도 건립하는데 힘을 보태기도 하고 이산가족의 상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느 정권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란 낙인이 찍혀 고문과 감옥살이를 감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어려움보다 제가 북한을 다니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북녘 동포들의 굶주림과 1000만 이산가족의 문제입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고 함께 하여야 할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슬픔이란 부처님께서 인간의 고통이 4품, 8품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루말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남쪽의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마, 설마 할 뿐 이제는 북한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품이 남쪽 백화점에서 팔리고, 경의선, 동해북부선이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금강산에 신계사 대웅전이 남쪽 조계종의 노력으로 지어 낙성 법회를 하였고 조계종 스님이 그곳에 상주하여 부처님께 우리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불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통일을 위한 밑거름으로 북녘 동포에게 마음의 보배 창고를 열어 보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인연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 불교**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다도 교육생 모집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기초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중급반)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중국차문화연구반)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6시(사법반)



인도 성지순례를 마치고...

해월 김주섭/포교사

몇 년 전에 중국 성도를 거쳐 티베트와 네팔의 성지 순례를 마치고,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좋은 도반들과 함께 아무런 부담 없이 부처님이 오신 나라, 인도의 성지를 순례 해보고 싶었던 차에 마침 경기 불교문화 연구원의 도반들과 인연이 되어 함께 인도 배낭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사실 해외 배낭여행은 처음이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했으나 사전에 법정스님의 인도 여행기를 읽어보고 다소 준비했던바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밤을 지새우고 어떤 일을 한다가나 여행을 하는 것이 체질에 맞지 않는 나로서 그토록 열악한 인도의 야간열차를 타고 12시간 이상을 이동하고 낮이면 공간도 좁은 승합차를 타고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위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7-8시간씩 여행을 하고, 더울 줄만 알았던 인도가 야간에는 한국의 가을 날씨에다 숙박시설들이 열악하여 몸을 씻는데로 어려움이 많았던 점 등은 사전에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게 하였다. 이런 상황속에서 여행계획에 따른 쉽없는 순례를 하다보니 이제까지 아파본 일이 없었던 치아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여행을 중단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마침 일행 중에 약사님이 두 분 계셨으며 이분들이 준비해온 잇몸염증 소염제를 복용함으로써 예정대로 순례를 무사히 마칠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의약품을 준비해주신 약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참배했던 부처님의 성지에서 운영에 보살님이 한국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한 맑은 차 공양을 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처님께 예불시 사용한 목탁을 치면서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봉독했던 예불은 어느 순례자들보다 보람있게 예불시 사용한 목탁을 치면서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봉독했던 예불은 어느 순례자들보다 보람있게 예불을 올렸다고 생각되며 특히 일행 모두가 새벽에 붓다가야의 대각탑 주위를 돌면서 엄숙하고 질서 정연하게 목탁소리에 맞추어 도량석을 마치고 보리수 아래 정좌하고 계시는 부처님 앞에서 예불을 올렸을 때 너무도 큰 환희심이 넘쳤고, 내가 만약 저세상에 가서 부처님을 뵈올때 부처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인도 땅 그 장소에 가서 목탁을 치면서 우리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이 그 옛날에 들어 보시지 못한 한국의 목탁소리에 맞추어 도반들과 함께 예불을 올렸다고 말씀드릴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행 하셨다는 고행림의 토굴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고행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니련강을 건너 수자타 마을을 거쳐 대각탑까지의 도보 순례는 참으로 보람 있었던 순례였다고 생각한다. 성지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성지를 보호하고 그리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수행에 열심한 티베트의 스님들이 너무도 존경스러웠고, 이런 티베트의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인도땅에 불교 성지가 이것이라도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다. 불가사의 할 정도로 그 옛날에 웅장하게 건축되었을 나란자대학, 녹야원, 기원정사, 죽림정사, 아쇼카석탑등의 건축물들이 너무도 아쉽게 힌두교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지금은 그 기초만 남아있으니, 종교가 무엇이며 종교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삶이 무엇인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그런 유산들이 남아있었다면 오늘에 인도인들은 오늘보다 훨씬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으리라고 반성도 해보면서 자업자득임은 어쩔수 없나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땅에 불교가 성행해야만 발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미친다. 그러고보면 우리나라의 불교문화 유산도 만일 외적의 침략과 6.25동란이 없이 그리고 중국도 문화혁명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불가사의한 유산들이 많이 남았을까 생각해 볼 때 역시 제행무상임을 새롭게 느껴보면서 영취산에 간직한 타임캡슐에 남겨둔 나를 다시 찾아가는 날 부처님께 부끄럼없는 포교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다녀왔던 도반들께 안부를 드린다. 감사합니다.

경기 불교



중국어, 영어 회화 수강생 모집

- 생활 중국어 : 매주 화,목요일 오후 화,목 오후3시
- 생활 영어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 기 간 : 3개월 과정
- 수강료 : 중국어 (60,000원). 영어 (60,000원)

노래 교실 수강생 모집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내용 : 대중가요 및 찬불가
- 기간 : 3개월 과정
- 수강료 : 60,000원



고운사를 다녀와서 1

김영순(포교사)/경기불교문화원답사반원

생활인으로서 일상탈출에 호사스러움(?)이 이번에는 인각사, 탑리, 고운사로 정해놓고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하루 하루를 손 쏘아 기다리는 즐거움은 나이가 들어서 행복한 기다림이었다. 2000년에 무박으로 다녀왔던 추억도 생각나기도하고.... 출발하는 날 새벽에는 하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오전 6시전인데도 먼동이 트고 있었고 걷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했다. 즐거운 마음이 시내 버스를 타고 남문에 다다라서 버스 기사분께 큰소리로 '수고 하세요'라고 평소애 잘 하지 않던 인사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문화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권중서 포교사님의 일정설명, 답사해야 할 곳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끝나고 현각스님의 "만행" 비디오 한편을 보고 나니 멀게만 생각했던 의성까지의 길은 중부내륙 고속도로 완공 덕분에 점심공양 시간 전 인각사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인각사에 도착하니 2000년에 청계사에서 인각사로 오신 상인스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셨고 다시 뵈게 되어 반가웠다. 상인 주지스님은 인각사에서 보각국사 일연스님이 고려 충렬왕 10년(1294)에 "삼국유사" 5권을 완간한 곳으로 오늘날 우리 역사를 증명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고증하는 사적지로서 소중히 보존, 전승 되어야 하며 일연스님께서 "삼국유사"로 제목을 쓸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까지 말씀해 주셨다. 상인 주지스님께서는 2006년이 보각국사 일연스님의 탄신 800주년 기념사업이 바빠서 점심 공양도 못하시고 영천 은혜사로 가셨다. 인각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10교구인 은혜사 말사로 신라 선덕왕 11년(642)에 의상 대사가 세운 창건하였다. 절 입구에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있는데 기린의 뿔이 암벽에 걸려 떨어진 곳 이라하여 절 이름을 麟角寺라 하였다. 문화재로는 국사전 앞에 보각국사 일연스님의 부도탑(보물 428호)이 자리하고 있다. 부도는 화강석으로 자연석의 지대석 위에 8각 하대석을 놓았으며 8각의 탑신전면에는 보각국사 정조지탑이라고 해서제로 탑명이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문비가 모각되어있으며 나머지 6면에는 사천왕 입상과 연화좌의 보살 입상을 양각 하였다. 보각국사비는 점판암으로 손상이 심하다. 글자체는 왕희지체로 집자하여 새겼고 임비시기는 충렬왕 21년(1259) 경으로 짐작한다. 가건물에 잠시 거처를 옮기신 소조 아미타삼존상은 조선 후기에 불상으로 오른쪽 어깨에 반달형 대의자락이 두세번 반전하며 살짝 걸쳐 있고 수인은 세 분 모두 오른손이 함마 축지인을 취했으며 왼손은 무릎위에서 손가락을 굽혀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한 독특한 수인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인각사 석조좌상과 삼층석탑, 미륵당내 석조 좌상등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아주작고 귀엽기까지 한 산령각(산신각)이 인상 깊었다. 인각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국사전이 기와 불사를 하는데 그 앞에서 계시는 일연스님(부도 보물428호)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계셨다. 비닐로 덮고 불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우리는 국보 77호인 탑리로 발길을 옮겼다. 의성 탑리 5층 석탑은 국보 77호로 삼국시대 말의 분황사의 모전석탑과 상통한다. 미륵사탑이나 정림사탑같은 백제기의 작품에서 볼 수 있고 기둥은 배흘림이며 기둥위에는 주두가 없었어 목조 건축과 같은 양식을 썼다. 우리나라 초기 석탑양식의 형성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존재라고 권중서 포교사님께서 해박한 설명을 해주셨다. 보물 188호인 관덕동 3층석탑을 보러가는 길은 쉽지않은 않았다. 좁은 농로에 농사철이라 마늘을 캐는 농부들에 경운기와 차가 가로막아 들어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위에 일 하시는 농부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관덕동 3층석탑은 신라하대의 것으로 우리가 도착 했을 때에는 관리가 소홀한 탓으로 주변은 온통 하얀 망초 꽃으로 자연이 부처님께 올리는 꽃 공양 그 자체이어서 방치해 두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버스를 15분쯤 달렸을까 고운사에 도착했다. 고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16교구 본사로써 신라 신문왕 원년(681)에 의상대사께서 창건한 사찰이다. 부용 반개형상(연꽃이 반쯤 핀 형국)의 천하명당에 위치한 고운사는 신라말 유교와 도교에 모두 통달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최치원이 여지, 여사 양 대사와 함께 지었다는 가운루와 우화루를 건축한 이후 그의 호인 고운을 빌어서 孤雲寺로 바뀌었다. (高雲寺) 특히 고운사는 지장보살 영험성지로 알려져 있으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고운사에는 다녀왔느냐?"고 묻는 단다. 문화재로는 보물 246호인 석조 여래좌상이 9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 준다. 대좌와 광배를 모두 갖추었으며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고 네모진 상체에 우견편단의 가사주름등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 되어있다. 또한 연수전은 사찰에서 볼 수 없는 건물로 왕실의 계보를 적은 어첩을 봉안하기 위한 건물로 조선 영조(1774년)에 지어 졌다. 그 밖에 대웅전 외벽에 걸려 있는 호랑이 그림은 우리가 자리를 옮길 때 마다 호랑이 눈동자가 계속 따라 다닌다. 그 그림 앞에서 우리는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고운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사찰답사반원들은 수원을 향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고 하루 동안에 소중한 인연들(수원 시청 불자님들)과 문화원 원장님, 스승같은 도반 권중서 포교사님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성불 하세요.



6월 후원회비 납부자 빠지신 분

배정희, 김재숙, 서상렬, 공석남, 박정자, 김순애, 주인수, 이수교

7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 (6월1일~7월1일)

총금액 : 1,582,400원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조권형, 윤광숙, 한영규, 최숙련, 박경아, 장용집, 홍인숙, 최명길, 김미월, 이기순, 이선우, 김영희, 이대근, 진철희, 김순자, 김의순, 조창윤, 윤영무, 정무근, 권중서, 이상범, 김기현, 구광국, 박철용, 이임성, 김말수, 김준옥, 안영찬, 이영옥, 우영월, 최정자, 장옥훈, 김영동, 이난호, 박선현, 김은주, 김정수, 이태순, 이태갑, 송호윤, 윤영예, 김용필, 진상범, 조명숙, 이남덕, 김순옥, 김준호, 양준영, 송경주, 김수은, 김미정, 염규용, 이병일, 양황경, 조병희, 배민한, 양정례, 심화식, 한혜승, 조남종, 문양순, 정현숙, 차용희, 이상님, 정경화, 서의호, 두금덕, 이기원, 조성남, 함대식, 장영남, 김은성, 손용식, 주인수, 이수교, 배정희, 김재숙, 서상렬, 공석남, 박정자, 김순애, 진주범, 어윤식

세무사

전 종 환

TEL. 031)246-1177
FAX. 031)257-5533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듣는다(스물일곱번째)

불기2549(2005)년 6월 18일(토)오후3시에 본원 큰법당에서 법타 큰스님의 북한의 불교와 통일이 라는 주제로 열린법회를 열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밑거름으로 북녘 동포에게 마음의 보배 창고를 열어 서 보시하자고 하셨습니다.



● 6월 사찰답사

6월 사찰답사는 아무리 무더운 삼복에라도 여기만 들어서면 땀이 짙 가신다는 송림이 우거진 대한불교 조계종 제 16교구 본사인 경북 의성의 고운사에 다녀왔습니다.

행사안내

● 불교성지:고구려 유적지 및 백두산 순례

경기불교문화원(원장/진철희)에서는 중국 동북 삼성(요녕성,흑룡강성,길림성)에 있는 불교성지(안산), 고구려유적지(집안), 백두산 천지를 보면서 법열을 느낄수 있는 최상의 순례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에 참석하시어 평생의 양식을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 참가안내

일 시 : 8월 24일~31일
순례장소 : 인천(연안부두)-단동-안산-심양-도문-백두산-집안-압록강-인천
동참금 : ¥549,000(P/P)
인원 : 25명(선착순 마감)
접수마감 : 7월 30일까지
문의 : 경기불교문화원(251-1083)



● 텐진 팔모스님 초청 강연 '법과 사랑나눔'



일시	장소	주제
7월7일(목)11:00	봉은사 법왕루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삶 (02-516-5652)
7월10일(일)11:00	불광사 보광당	바쁜 일상속에서 다르마의 수행 (02-413-6060)
7월18일(월)13:00	능인선원 대법당	작은 나눔(봉사), 큰 깨달음 (02-577-5800)

● 백중(우란분절) 법회

일시 : 8월 19일(금요일) (음 7월 15일) 오후 2:00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 백중지장기도

백중 특별 인가등 1인 10,000원(49일)
백중 위패 일만원(부부 1위)
입제 7월 8일 10:00
= 상세 선망부모,태중아기,유주무주영가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특별영가등을 백중기도기간동안 밝혀드립니다.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 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7/11 개강
	기초교리	전문법사	3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7/13 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3개월 6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가섭스님	30명	10주 90,000원	유마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요 가	문명순	20명	3개월 90,000원 (120,000)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임산부요가(주2회)	매주 화/금요일 오후 3시30분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도중급	윤영예	20명	3개월 90,000원	다도중급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부반/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설산스님	100명	무료	왕생극락과 생활불교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70,000원	통영 연화사, 보덕암 남해 보리암	세째주 토/일요일 오전 7시30분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고·대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 FAX. 031-251-1779